

#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변화

업 영 애\*

## < 목 차 >

- |                |              |
|----------------|--------------|
| I. 서 언         | IV. 교과과정의 비교 |
| II. 선행연구       | 1. 과목 수와 학점  |
| III. 교과과정의 변화  | 2. 교과목의 변화   |
| 1. 이론적 배경      | 3. 교과목의 분포   |
| 2. 외국 교과과정의 변화 | V. 결론 및 제언   |

## I. 서 론

대학에 설치된 대부분의 학과들은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를 갖고 개설되었고, 그들의 교육활동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진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다.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과의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수긍하고 동의하는 교육의 정의가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도 무엇을 가르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려고 시도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나 성패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때로 시도 그 자체의 정당성이 도전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설사 시도를 한다 해도 그러한 노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누구나가 타당성을 인

\* 효성여대 도서관학과 교수

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것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종종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이나 요구에 당면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 결과를 궁금히 여겨서, 그들의 활동을 분석도 하고 평가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교육의 사회적 환경을 위시해서 현실적인 요구등, 실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르칠 과목들을 정해 놓은 교과과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교육학자들이 어느정도로 동의할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도서관학과 같은 도서관 현상과 현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용학문의 교육은, 그 학문이 다루는 대상이 속해있는 사회제도나 실행기관의 역할 및 기대되는 봉사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때로는 기술까지도,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란 가르쳐지는 내용의 실질적인 뼈대 혹은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분야의 근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이론들을 근거로해서 교육할 내용으로 정한 구체적인 교과목들로 짜여지는 것이다.

비록 개개 교과목의 내용이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전문직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육하는 사람 개인의 지식, 경험, 환경, 기호등의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교과과정이 교육의 효과나 그 목표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은 아무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진부할 정도로 되풀이 되어 왔으나,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과는 매우 소원하게도 느껴지는 이론, 즉 도서관학교육은 도서관 사서와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므로,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에 기대되는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실은 우리의 도서관학교육과는 꽤 먼 거리가 있어왔다. 도서관 현상은 고사하고, 도서관 현장의 실태도 파악할 여유 없이, 도서관과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동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도서관학 교과과정이 우리의 도서관학 교육현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매우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잉태된 도서관 문화와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정도의 혼란기를 거치고 대학원 과정으로 정착되었던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이 우리의 4년제 대학과정으로 옮겨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의 도서관학과 교과과정과 현재 즉 1990년대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의 배경은 우선, 필자의 학위논문이 한국의 도서관학교육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sup>1)</sup> 1980년대 교과과정의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1991년에 도서관진흥법의 발효로 사서의 명칭도 2급 사서와 1급사서로 바뀌면서 자격요건에도 변화가 있었던 점, 그리고 필자의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이 4년 주기로 약간의 변경이 있으므로, 1985년의 교과과정과 1993년의 교과과정 사이에는 분명히 상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더우기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서 거의 모든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꾸었으므로, 학과명칭의 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변화도 예측되었다. 비교의 결과는, 다시 말해서 교과과정의 변화 혹은 차이점들은, 이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인가? 혹은 미국의 교과과정이나 국제적인 추세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를 파악하

1) Young Ai Um, "Library Education in Japan,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A Comparative Study (Ph.D. thesis, Loughborough University of Technology, 1987).

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과정의 실제 비교에 있어서는, 학과의 수가 30개이므로, 모든 학과의 교과과정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각 학과의 교과과정에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필자의 논문이 9개 대학교(경북, 경성, 성균관, 연세, 이화, 전남, 전북, 청주, 충남)의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을 분석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이 9개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서, 그 결과를 1985년도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학요람이나 편람, 혹은 대학안내에 나타난 교과과정을 이용하였으며, 그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던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학과에 교과과정을 문의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II. 선행 연구

도서관학분야에서 사서교육이나 교과과정이라는 주제가 연구논제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교육제도의 연구나 교과과정의 분석을 포함한 수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교과과정의 변화를 다룬 것은 구본영교수가 197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을 연세, 이화, 중앙 및 성균관대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한편으로 밝혀졌다. 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공과목에 있어서 4개 대학이 1973년 이전의 이수 학점 160이 1973년도 이후 140으로 줄어들면서, 개설과목에 있어서 학교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전공필수과목이 줄어들면서 전공선택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도서관학과목만 필수로 남고, 주제별서지과목과 관종별 경영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넘어갔으며, 정보학계통의 과목이 새로 등장한 반면에 어학과목이 크게 축소 되었고, 개설학점 수에 있어서도 학교간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2)</sup>

### III. 교과과정의 변화

#### 1. 이론적 배경

1887년에 듀이가 도서관에서 실제로 행하여지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School of Library Economy의 교과과정을 정했을 당시에, 그 과목들의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분명한 설명을 확인 할 수는 없으나, 막연히 그 근거가 꽤 회박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은 가능하다.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는 학자나 교육자들, 혹은 그 분야의 실무자들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도서관학교육이 사회적 제도 혹은 실행기관으로서의 도서관관상 뿐 아니라, 도서관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 및 도서관 현장과도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교육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매체와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도서관의 역할, 한걸음 더 나아가 기록자료와 정보의 이용 극대화라는 대명제하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에 큰 이의들은 없을 것이다. 이 역할은 시공을 초월한 도서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인간, 도서관 용어로는 이용자가, 그들이 필요로하는 자료나 정보에 접근토록 하는데에 필요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교과과정이 짜여져야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오고 있는 것이다.

Goldhor는 교과과정을, 교육의 기회를 조직해 놓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그 과정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실시되어야 하

2) 구본영, "한국 도서관학교육의 회고", 도서관학 16 (1989.6.), p. 17.

고, 해당 분야의 교유한 지식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Danton은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목표를 학생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익히도록 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1. 표현된 기록과 그 기록이 인류 문명에 끼치는 공헌
2. 사회조직 안에서 도서관이 수행해 오고 있는 역할
3. 도서관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근거가 되는 이론에 관한 지식
4. 도서관이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술
5. 도서관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직의 이상, 이해 그리고 기준.<sup>4)</sup>

Foskett는 도서관학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의 일반적인 구조는 총체적인 지식, 지식의 생산과 출판, 자료의 수집과 배열, 지식의 전달과 이용, 도서관 및 정보봉사 기술, 그리고 계획과 관리를 포함하는 노선을 따라서 짜여져야 된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학에 대한 개념이나 도서관봉사에 대한 이해, 도서관직에 대한 철학에 따라서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교과목들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론이나 개념, 철학을 근거로 하든지, 사서와 정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은, 도서관과 기록자료에 대한 이해,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도서관 운용 및 새로운 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할 것이다.

---

3) Herbert Goldhor, ed. *Education for Librarianship: the Design of the Curriculum of Library School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1971. p. 5.

4) J. Periam Danto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Paris, Unesco, 1949. pp. 12-13.

5) D. J. Foskett, "The Education of Librarians," In the *Metropolitan Libraries*, ed. by Ralph W. Conant and Kathleen Molz. Cambridge : Massachusetts, MIT Press, 1971. pp. 246-247.

## 2. 외국교과과정의 변화

듀이의 School of Library Economy의 교육프로그램은, 한학기 강의에 2년의 현장실습으로 출발하였다. 강의된 과목들은 ‘도서관 경제’ (Course in Library Economy), ‘서지’ (Course in Bibliography), 제본, 인쇄, 출판, 도서관매 및 장비에 관한 ‘전문가의 강의’ (Lectures by Specialists), ‘지명 사서의 조언’ (Advice from Leading Librarians), 그리고 ‘대학강의’ (College Lectures)를 포함하였다.<sup>6)</sup>

지금은 매우 생소하게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적이라고 자부하는 사서들의 교육을 위한 교과목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목들로 시작된 도서관학교육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 25개의 과목으로 늘어났으며, 목록, 도서선택, 참고업무, 분류가 주요 교과목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학생들 강의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sup>7)</sup> 그 후에 자료선택, 분류편목, 참고 및 서지, 행정의 코어커리큘럼이 대부분의 도서관학 교육기관에서 채택되었다.

Case Western University가 1955년에 정보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한 이후에, 1960년대를 거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업무의 데이터 처리, 도서관 기능의 자동화등 정보학 개념과 관련된 과목들이 종래의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추가되었다.<sup>8)</sup>

Reed는 1960년대의 미국의 인가받은 도서관학교들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모든 학교가 참고업무, 분류편목, 행정 및 정보학을 교과목으로 포

6) Carl M. White, *A Historical Introduction of Library Education: Problems and Progress to 1951*. Metuchen: N. J., Scarecrow, 1976. p. 54.

7) Laurel A. Grotzinger, "Curriculum and Teaching Styles: Evolution of Pedagogical Patterns," *Library Trends*, Vol. 34 (Winter, 1986). p. 454.

8) Timothy W. Sineath, "Information Science in the Curriculum",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7 (1/2, 1992), p. 57.

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9)</sup> 이때에 이미 정보학이 도서관학의 교과과정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Reed의 보고에 따르면, 조사된 학교의 96 %가 선택 및 수집과목을 개설했고, 86 %가 연구방법, 80 %가 도서관학개론, 혹은 도서관과 사회 과목을, 그리고 44 %가 커뮤니케이션과 도서관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다.

도서관학 교육이 대학원 과정으로 자리잡게 되고, 도서관학의 이론이 점차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널리 인정되기 시작한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이론은, 학생들에게 교양과목과 코어커리큘럼, 그리고 전공전문과목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루는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봉사하면서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도서관학의 교육 이전에 충분한 교양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양과목들은 다른 학문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이해력과 교양에 공헌할 수 있으므로, 사서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다.<sup>10)</sup> 코어커리큘럼이란 도서관의 관종과 크기에 관계 없이, 모든 도서관들이 근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서들이 습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지식을 가르칠 과목들로 구성된 것이다. 전문적인 봉사를 가능케 하는 전문과목들은 사서들이 보다 고도의 구체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회적 요구나 도서관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1976년에 제정된 IFLA의 도서관학교 기준도, 교과과정이 기본적인 '코어' 과목들과, 교양교육, 그리고 전문분야로 짜여져야 된다고 강조하였다.<sup>11)</sup>

9) Sarah R. Reed, "The Curriculum of Library Schools Today: A Historical Overview", I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ed. by Herbert Goldhor. p. 42.

10) Peter Havard-Williams, "Professional Education: a Personal View",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 13 (October, 1981). p. 351.



1980년에 출판되었으므로, 그것이 분석한 데이터는 1970년대 말의 미국 도서관학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이었을 Conant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기관들은 여전히 참고 및 서지, 기술봉사, 그리고 행정의 도서관 전문직의 기본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과 도서관의 역사적 배경이 모든 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sup>12)</sup>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도서관학 교육에 큰 변화는 없으며, 도서관 관리나 서지통정,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주요 코어 분야들이 적절하게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될 것 같지 않다는 예측도 있다.<sup>13)</sup>

그러나, 기술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요구에 따라 교과과정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Grotzinger는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의 대다수가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코어 과목들과 적절한 수준의 도서관학의 선택과목들, 컴퓨터공학, 수학, 철학, 다양한 관리이론,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조직행동, 교육개발, 인간 및 기계공학, 사업, 사회학, 그리고 1년 과정의 도서관학 대학원의 졸업생인 일반 사서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분야를 결합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합이 지나친 감이 있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다고 토로하였다.<sup>14)</sup>

Buckland도 최근에 와서 도서관학이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을 주시하였다. 즉, 모든 관종의 도서관, 문서보존소, 데이터 베이스, 기록관리, 소송, 공학, 관료사회의 도큐멘테이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

11)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 1976", *IFLA Journal*, Vol. 2 (November, 1976), p. 219.

12) Ralph W. Conant, *The Conant Report: A Study of the Education of Librarians*. Cambridge, MIT Press, 1980. p. 25.

13) D. J. Groga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Some Persistent Issues",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 1 (March, 1983). p. 22.

14) Grotzinger, *op. cit.* p. 453.

두 도서관학의 일부로 느껴지던, 그렇지 않던 간에, 모두가 공동 특성을 공유하는 검색을 근거로 하는 정보봉사의 예들인 것이다. 최소한, 도서관봉사를, 관련된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대가족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고, 도서관학교는 확장, 통합, 연합이라는 방법을 써서, 도서관학 석사를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하나의 주요 전공 분야로 하는, 보다 폭 넓은 대학이 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5)</sup>

### 3. 한국 교과과정의 변화

1946년에 시작된 최초의 도서관학 교육기관인 국립조선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이 개설한 도서관학 관련 과목들은, 일주일에 두시간씩 강의된 도서관 관리법, 동서편목 실습, 서서편목 실습, 서지학, 인쇄 및 제본법의 과목들과, 일주일에 한시간 강의된 도서관사와 서서편목법, 그리고 가장 많은 세시간의 강의를 실시된 동서편목법이었다. 이때의 교과과정은 주로 편목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학과인 연세대학교의 1957학년도 교과과정에서 도서관학 관련 과목들을 조사한 결과는, 입문분야에 6학점, 기술업무분야에 18학점, 참고 및 서지과목에 23학점, 경영에 3학점이 할당되었고, 정보학 관련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다. 어학분야에 36학점, 그리고 사서실습에 1학점이 주어졌다. 교과과정에서 어학분야의 과목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이 참고 및 서지, 그리고 기술업무 분야, 입문분야, 경영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6)</sup>

1973년도 대학교육과정 개편 이후의 전국 27개 대학의 도서관학 교과과

15) Michael Buckland, "Library Education : A Century",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32nd Ed. (1987). p. 279.

16) 최성진, 도서관학봉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pp. 277-278.

정의 개설과목을 분석한 구분영교수는, 입문분야가 15%, 기술업무분야 24%, 참고봉사 및 서지분야 23%, 도서관경영분야 14%, 정보학분야 12%, 어학분야 4%, 기타 8%로, 기술업무분야와 참고봉사 및 서지분야의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sup>17)</sup>

1989년에 수행된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는 전국 24개 도서관학과와 교과과정을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서, 분야별로 개설 과목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필수과목의 경우에, 기술업무분야에 78, 입문분야에 60, 참고 및 서지분야에 39, 도서관경영에 30, 기타 분야에 10, 그리고 정보시스템과 어학분야에 각각 5과목씩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선택과목에 있어서는, 기술업무분야에 110, 참고 및 서지분야에 97, 도서관경영분야에 75, 어학분야 71, 입문분야 49, 기타 33, 그리고 정보시스템분야에 27과목씩 개설되었다. 필수와 선택과목 모두에서 기술업무분야의 교과목들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 IV. 교과과정의 비교

### 1. 과목수와 학점

1985년도 9개 대학교 도서관학과와 전공필수 과목 수는 평균 9과목에 26학점이던 것이 1993년에는 10과목에 29학점으로 늘어났고,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23과목 68학점에서 25과목 73학점으로 늘어났다. 필수과목이나 선택과목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가 정보학과 정보기술관련 과목들 및 인접분야의 과목들을 포함함으로써 야기된 현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17) 구분영, *op. cit.*, p. 26.

18)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p. 33-34.

&lt; 표 1 &gt; 과목수와 학점의 비교

학교명	필수과목		선택과목	
	1985 과목수 (학점)	1993 과목수 (학점)	1985 과목수 (학점)	1993 과목수 (학점)
경북	11 (29)	11 (3)	16 (45)	19 (54)
경성	10 (24)	9 (24)	16 (45)	21 (60)
성균관	9 (27)	11 (33)	20 (60)	22 (66)
연세	11 (33)	12 (35)	25 (75)	25 (75)
이화	6 (18)	-	18 (54)	27 (81)
전남	11 (33)	11 (33)	25 (72)	20 (60)
전북	7 (21)	8 (24)	27 (80)	30 (90)
청주	8 (24)	9 (27)	23 (66)	23 (64)
충남	8 (24)	8 (24)	38 (113)	36 (105)
평균	9 (26)	10 (29)	23 (68)	25 (73)

## 2. 교과목의 변화

교과목의 변화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전공필수과목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다른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필수에서 제외된 과목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필수로 첨가된 과목들도 거의 모두 선택에서 전환된 것들이다.

필수과목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통적인 코어과목 이외에 한, 두과목 추가되는 것이 상례로, 전혀 새로운 과목이 필수로 개설된 경우는 없다. 두드러진 현상은 도서관 자동화론이 전북대학교에, 도서관 전산화개론으로 충남대학교가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것이다.

선택과목으로 새로 개설된 과목들이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과명칭의 변화로 도서

관학이 문헌정보학으로 대체된 과목들과, 전통적인 도서관학 과목으로 개설되어 오던 과목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등장한 과목명들은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론이 3개 학과의 선택과목에 추가되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과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출판학개론과 출판과 저작권은 종래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로, 인접분야의 과목으로 볼 수 있다.

문서관리론, 정보사회론, 정보처리기술론, 문헌정보처리, 이론정보학, 특수매체론, 계량서지학, 정보정책론, 정보관리기초, 정보시스템분석, 도서관조사 통계론, 정보시스템설계, 자동화처리실습, 자동화프로그래밍실습, 정보시스템실습, 전자매체론 등의 과목들이 1993년도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과목들이다.

### 3. 교과목의 분포

교과과정에 포함된 과목들의 강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명칭에만 의존해서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은, 그 결과가 피상적일 수 밖에 없는 위험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대략적인 교육의 방향, 혹은 경향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과정을 분류할 때에, 앞에서 인용한 논문들이 채택한 입문분야, 기술업무분야, 참고 및 서지분야, 경영분야, 정보학 또는 정보시스템분야, 어학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로 구분하는 방법도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Unesco가 1974년 NATIS 회의에 내놓은 도큐멘테이션, 도서관, 문서관에 종사하는 전문직 교육을 위한 기본교과과정을 1977년에 영국의 도서관협회는 정보학, 도서관학, 문서관학의 기본 교과과정으로 제시하면서, 과목들을 기본과목 (Foundations, Masonry), 자료 (Materials), 방법 (Methods), 관리 (Management), 그리고 이용자 (Men)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서는 '기초과목', '자료와 정보원', '자료와 정보의 조

직', '이용과 봉사', '경영 관리', '정보학 및 정보기술', 그리고 '어학'의 일곱 카테고리를 사용하였다. 인접분야의 과목이나 기타에 속할 과목들은 모두 '기초과목'에 포함시켰다.

이미 언급한 과목명에 의존해서 분류하는 약점 이외에도, 특정 과목이 어느 한 카테고리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도 분석의 오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등의 과목들을 '자료와 정보원'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자료의 조직과 봉사도 다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목들이 고전자료 조직법, 목록분류법연습, 비도서자료 조직법 등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므로, 과히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정보학 및 정보기술' 분야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며, 우리의 도서관학 교육에서 지나치게 치중되어 온 '자료의 조직' 분야와 응분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용과 봉사' 분야의 변화는 보다 잘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각 학과의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들을 앞에서 언급한 일곱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각의 %를 산출해서, 9개 학과의 평균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필수과목의 경우 1985년에는 '자료와 정보의 조직' 관련 과목이 2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자료와 정보원'의 23.6%, 그리고 22%의 '기초과목', 16.3%의 '이용과 봉사' 분야, '경영 관리' 분야가 12.0%, '정보학 및 정보기술'이 1.0%, '어학'이 0.8%의 순서였던 것이, 1993년에는 '기초과목'이 22.4%로 가장 많은 과목들이 개설 되었고, 그다음이 22.3%를 차지한 '자료와 정보의 조직' 과목들이고, 20.7%를 차지한 '자료와 정보원', 16.9%의 '이용과 봉사', 10.6%의 '경영 관리', 4.3%의 '정보학 및 정보기술', 그리고 3%의 '어학'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비율면에서, 1993년에 '기초과목'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것

을 제외하고는 카테고리의 순위에 변화는 없으나, 1985년에 1.1 %에 불과하던 '정보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과목들이 1993년에는 4.3 %로 늘어났다.

전공선택과목에 있어서는, 1985년의 순위가 '자료와 정보원' (25.6 %), '어학' (18.5 %), '기초과목' (14 %), '경영 관리' (13.1 %), '자료와 정보의 조직' (12.2 %), '정보학 및 정보기술' (11.3 %), '이용과 봉사' (5.2 %) 이던 것이, 1993년의 경우에는 '자료와 정보원' (25.8 %)과 '어학' (14.6 %) 분야들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나, 그 다음이 '정보학 및 정보기술' (14.1 %), '자료와 정보의 조직' (14.0 %), '기초과목' (13.8 %), '경영 관리' (11.4 %), 그리고 '이용과 봉사' (6.4 %) 로 순위가 바뀌었다. 선택과목에서 '정보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합쳐서 평균을 낸 결과는, 1985년의 '자료와 정보원' (24.2 %), '기초과목' (16.5 %), '자료와 정보의 조직' (15.5 %), '어학' (13.4 %), '경영 관리' (12.8 %), '정보학 및 정보기술' (9.1 %), '이용과 봉사' (8.4 %)의 순서였던 것이, 1993년에는 거의 같은 순서에서 '정보학 및 정보기술' (11.2 %) 분야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영 관리' (10.8 %) 분야를 앞선 것이 다른 점이다.

< 표 2 > 교과목의 분포

카 테 고 리	필수과목 (%)		선택과목 (%)	
	1985	1993	1985	1993
기본과목	22.0 %	22.4 %	14.0 %	13.8 %
자료와 정보원	23.6 %	20.7 %	25.6 %	25.8 %
자료와 정보의 조직	24.3 %	22.3 %	12.2 %	14.0 %
이용과 봉사	16.3 %	16.9 %	5.2 %	6.4 %
경영 관리	12.0 %	10.6 %	13.1 %	11.4 %
정보학 및 정보기술	1.0 %	4.3 %	11.3 %	14.1 %
어학	0.8 %	3.0 %	18.5 %	14.6 %

## IV. 결론 및 제언

1985년의 교과과정과 1993년 교과과정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서관 진흥법의 발효나, 학과 명칭의 변화에 기대되는 만큼의 큰 변화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코어커리큘럼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택과목으로 개설되는 과목들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과목에서 정보학 관련 과목들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의 보급과 도서관 자동화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대다수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이, 분류와 편목 등의 전통적인 도서관 기술업무의 자동화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참고봉사의 자동화등, 도서관자동화에 치중되고, 마이크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네트워킹, 비디오 디스크 등의 과목들을 포함하였다는 사실<sup>19)</sup> 현재 우리의 교과과정과 흡사한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였다는 선입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시작에서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이 미국의 것을 모델로 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교육기관들이 1970년대부터 학과명칭에 정보학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미,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을 받아들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므로,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도서관학 뿐 아니라, 많은 학문 분야가 선진국의 학문과 이론을 받아들여서 대학에서 강의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 Howard Fosdick, "Trends in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Special Libraries*, Vol. 74 (October, 1984), p. 30.



문제는, 미국의 도서관 개념과 도서관학의 이론들이 그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철저히 이해되고, 소화되어서 우리의 교육 현장으로 이식되는가? 하는 것이다. 피상적인 모방이나, 단순한 기술과 지식의 전달은 자칫, 교육을 본연의 궤도에서 이탈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분야나 순수학문의 경우에는 이론의 전수에 별다른 갈등이나 부담이 없을 수가 있겠지만, 도서관학의 경우에는, 도서관 현상, 현장, 그리고 이용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이므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것과는 영 거리가 먼 내용을 미국의 교과서에 의존해서 우리의 것인 양, 오해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목의 선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과목이 가르치는 내용일 수 있다. 같은 과목이라도, 도서관의 환경과 자료, 이용자, 봉사의 범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우리의 이론이나 지식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적어도, 미국 교과서 내용의 무조건 수용을 지양하고, 그 나라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론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서, 우리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 이외에도, 미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12과목 내외로 짜여진 교과과정이 우리의 학부 과정으로 옮겨져, 4-5배로 늘려져서 가르쳐질 때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육할 내용의 빈곤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가르치는 내용도 대부분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기에, 어려움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이 몇십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1950년대부터 대학원 과정으로 정착된 것은, 그들이 도서관인을 배출하기 위한 도서관학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직 교육이 되려면, 전문지식 이전에 일반 대학과정에서 개설되는 교양교육을 필수적으로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전문직 교육의 특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교과과정을 짠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가능한 한, 바람직한 도서관 전문직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양과목을 이수케하고,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기술적으로 개설하여,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배출된 일반 사서를 위한 교육을 지양하고, 전문사서의 배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내용이 중복되는 비슷한 과목들을 수강해야 되는 낭비적인 요소들을 방지하고, 전공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들이 관심 갖는 관종이나, 능력에 적합한 업무와 관련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일 것은, 학과 교수들의 수나 전공분야 등,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이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학과의 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도 하여금 부전공을 이수해서 전문 주제분야를 갖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교과과정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자료의 조직을 포함하는 기술업무 분야의 과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이와 비례해서 이용과 봉사에 관련된 과목들이 상당히 등한시 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이나 기록자료의 보존기능이 도서관이 수행할 중요한 역할임에는 틀림 없으나, 이러한 보존도, 궁극적으로는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자료의 이용과 봉사 기능은, 도서관의 모든 기술 업무가 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과제가 되는 것으로, 교과과정에서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될 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과정에서는 이 분야가 지나치게 도외시 되어 왔다.

교과과정의 변화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정보학과 컴퓨터관련 과목들의 증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정보학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요구와 도서관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해 있는 점과, 학과 명칭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도서관정보학교육의 영향등으로 야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동화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파급되어 있고, 컴퓨터의 위력에서 벗어난 학문 분야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문헌정보학과와 교육현장과 도서관현장의 사서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테크놀로지에 지나친 의존에 경종을 울리는 말들이 종종 눈에 띈다. Borko는 Foskett를 인용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목적과 절차 위에서 군림토록 해서는 안되고, 봉사를 무시하고 기술에 치중하지 못하도록, 교과과정이 이용자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전달의 사회적인 역할을 보다 강조해야 된다고 역설하였다.<sup>20)</sup> 우리도 음미해 볼만한 언급이다.

Buckland도, 도서관 봉사의 임무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라면, 그 임무 자체는 정보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데에 사용되는 매체가 변한다 해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도서관정보학교육을 위한 교과과정도, 소수의 기본적인 중복 요소들이 계속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참고로, 그가 제시한 요소들을 소개하면, 1) 정보와 정보봉사의 역할, 2) 봉사받을 그룹 (학생, 연구자, 어린이, 노인 등)의 요구, 정보수집형태,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3) 정보검색의 이론과 실제 - 분류, 목록, 색인, 서지 등, 4) 훌륭한 도서관 봉사의 개발과 제공에 가장 유리할 관리적, 정치적, 기술적 수단 등이다.<sup>21)</sup>

20) Harold Borko,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5 (May, 1984). P. 190.

21) Michael K. Buckland,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the Next Century", *Library*

도서관정보학 교육기관은 사서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보처리 시스템과 관련 기술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갖게하면서, 풍부한 지식을 지닌 교수들이 가르치는 도서관정보학의 원리와 개념에 대하여 건전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22)</sup>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나,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에 종사할 사서나 정보봉사를 할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다. 미국의 과목과 동명의 과목이라도, 가르치는 내용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상과 현장을 근거로한 이론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서는, 도서관 현장과 교육기관, 즉 교수들과 사서들의 공동 노력이 절실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들이 함께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서 이론을 만들어 내고, 그 이론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가 빨리 와야 하겠다. 강의에도 현장 경험을 충분히 갖춘 유능한 사서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또한 교수진의 경우에도, 도서관 현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요구된다. 이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실무와 격리되면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 둔감해 질 수 있고, 이것은 도서관학의 교육에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 되풀이 되는 말이나, 도서관학과나 문헌정보학과와의 교과과정은 다양한 기록 자료의 수집, 조직, 전달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짜여지고, 이러한 활동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학생들이 전문직 교육의 요건인 교양교육, 코어커리큘럼, 전문영역과목을 이수하여서 일반 사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전문분야의 사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충분한 교양과목의 이수를 장

*Trends*, Vol. 34 (Spring, 1986). pp. 785-786.

22) John Corbin, "The Education of Librarians in an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9, No. 4 (1988). p. 86.

려하고, 부전공을 필수적으로 선택하게 하며, 전공선택과목은 학생들의 관심, 능력, 그리고 부전공에 따라 이수함으로써, 전문 분야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도서관 이용자와 이용 및 봉사 관련 과목들을 보다 많이 개설하여, 자료와 자료의 조직에 치중하는 교육에서 이용자와 봉사도 중시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본영. "도서관학 교육과정 구성의 원칙". 도서관학, 15 (1988). pp. 45-72.
- \_\_\_\_\_. "도서관학 교육의 회고", 도서관학, 16 (1989.6). pp. 3-32.
-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 엄영애. "도서관학 교육의 이론적 근거". 효성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33 (1986). pp. 227-247.
- Bookstein, A. "Library Education, Yesterday and Today: Library Education in the University Setting". *Library Quarterly*, Vol. 56 (October, 1986). pp. 360-369.
- Borko, Harold.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5 (May, 1984). pp. 185-193.
- Buckland, Michael.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n the Next Century". *Library Trends*, Vol. 34 (Spring, 1986). pp. 777-788.
- \_\_\_\_\_. "Library Education: a Century".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Annual* (1987). pp. 279-281.
- Corbin, J. B. "The Education of Librarians in an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9, No. 4 (1988). pp. 77-87.
- Fosdick, Howard. "Trends in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Special Libraries*, Vol. 74 (October, 1984). pp. 292-302.
- Galvin, Thomas J. "Change i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Library Journal*, Vol. 101 (January 1, 1976). pp. 273-277.
- Gleaves, Edwin S. "Library Education: Issues for the Eighties". *Journal*

-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22 (Spring, 1982). pp. 260-274.
- Goldhor, Herbert, ed. *Education for Librarianship: The Design of the Curriculum of Library School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1971.
- Grogan, D. J. "Education for Librarianship: Some Persistent Issues".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 1 (March, 1983). pp. 3-23.
- Grotzinger, Laurel A. "Curriculum and Teaching Styles: Evolution of Pedagogical Patterns". *Library Trends*, Vol. 34 (Winter, 1986). pp. 451-468.
- Grover, R. J.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 Education for the Learning Society: a Model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26 (Summer, 1985). pp. 33-45.
- Hayes, R. M. "The King Report on Library Education: Three Perspectives". *Library Quarterly*, Vol. 57 (October, 1987). pp. 426-435.
- McGarry, K. J. "Curriculum Theory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or Information*, Vol. 5, No. 2/3 (1987). 139-156.
- \_\_\_\_\_. "Education for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a Retrospect and a Revalu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39 (June, 1983). pp. 95-122.
- Marco, Guy A. "Recent Adventures of the American Core Curriculum."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32 (July/August, 1978). pp.

279-283.

Reed, Sarah R. "Library Education 1977-1987".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19 (Fall, 1978). pp. 87-96.

Sineath, Timothy W. "Information Science in the Curriculum".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6, No. 1/2 (1992). pp. 55-65.

Subramanyan, K. "Current Concerns in American Library Education".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 15 (July, 1983). pp. 299-305.

Vondran, Raymond F. "Rethinking Library Education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1, No. 3/4 (1989). pp. 27-36.

White, Herbert. "Library Education: a Strategy for the Future". *Wilson Library Bulletin*, Vol. 56 (October, 1981). PP. 105-109.

Wright, H. Curtis. "The Symbol and Its Reference: an Issue for Library Education". *Library Trends*, Vol. 34 (Spring, 1986). PP. 729-776.



## Curriculum Change i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Young-ai Um\*

This paper compares the curricula in 1985 and those in 1993 of nin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Comparison may be claimed as a curriculum comparison between the Departments of Library Science and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purpose of the comparison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of the curricula provided between the 1980s and the 1990s. The differences are expected to show the trends of library education and the reasons which have caused them to happen. Before comparing,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of curriculum developments as well as the curriculum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Korea have been describ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numbers of subjects, compulsory and elective, along with credits, the subjects included in the curricula, and the distributions of the subjects have been compared. Some differences are found between the periods, but they are not so distinctive as expected. The most notable change is an increase of subjects on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the findings, a few suggestions, which include that subjects dealing with library use and services need to be increased, are recommended.

---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Hyosung Women's University